

# 北韓의 茶山研究視角

金 英 秀

I. 問題提起

III. 茶山研究視角의 變化

II. 茶山研究現況

IV. 茶山研究에 대한 評價

## I. 問題提起

북한정권 수립 이후 북한 내부에서는 우리 민족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구분짓느냐는 문제를 놓고 많은 시간을 들여왔다. 즉 마르크스 歷史觀에 맞추어 어떻게 한민족의 역사를 再解析해야 하는가가 가장 큰 과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 중 가장 커다란 논쟁을 불러 일으킨 것이 古代奴隸社會의 존재유무논쟁 및 資本主義 社會의 출발시기설정문제였다.<sup>1)</sup> 50년대 중후반부터 제기된 이 문제들은 여러 번의 수정과 시행착오를 거쳐 70년대말 80년대 초에 이르러 비로소 하나의 통일된 역사해석시각을 갖게 된다.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역사해설서가 바로 1979년부터 1982년에 걸쳐 간행된 「조선전사」이다. 이후부터 간행되는 역사서들은 일관된 시각을 견지해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역사연구과정 속에서 茶山 丁若鏞이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가를 보고자 한다. 즉 북한에서 어떻게 茶山 丁若鏞을 연구하

1) 주요 論爭에 대해서는 「역사와 현실」(1989년 창간호)에 실린 송호정의 “북한에서의 고·중세사 시기구분”(pp. 119~153)과 도진순의 “북한 역사학계에 서 근·현대사 시기구분 논쟁과 그 변화”(pp. 154~180)를 참조. 또한 양태진, “북한 사학계의 연구성향분석—특히 1960년대를 전후하여,” 「북한학보」, 제 7집(1983), pp. 113~148 및 이병천 편, 「북한학계의 한국근대사논쟁」(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9)의 해설과 제 I부 시대구분 논쟁 부분을 참조.

고 평가해왔는 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 國史研究實態의 한 단면을 파악하는 동시에 어떤 요인이 역사연구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연구주제 중에서 茶山 丁若鏞을 택한 이유는 우선 최근의 남한연구 분위기 및 출판현황에 기인한다. 요사이 북한관계 역사책들이 소개되는 가운데 다산과 관련된 단행본이 3권이나 연이어 출간되었는데, 최익한이 지은 「실학파와 정다산」(평양, 1955)과 과학원 철학연구소가 펴낸 「다산 정약용탄생 200주년 기념 논문집」(평양, 1962), 그리고 정성철이 지은 「실학파의 철학사상과 사회정치적 견해」(평양, 1974)의 사본이 그것이다.” 그 결과 다른 주제에 비해 주요 관련자료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茶山을 채택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북한의 역사연구실태를 살펴볼 때, 다른 실학사상가들에 비해 茶山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많다는 데에도 있다. 특히 역사연구태도의 주요 변화시기마다 茶山에 대한 연구업적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北韓의 경우 茶山을 보는 시각은 과연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또 어떤 이유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등에 초점을 두면서 北韓의 茶山研究 視角을 검토하고자 한다.

## Ⅱ. 茶山研究現況

북한의 다산연구시각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茶山研究實態를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崔益翰, 「실학파와 정다산」, 1955.

2) 이 3권의 寫本은 모두 1989년에 출간되었는데, 「실학파와 정다산」은 청년사, 「다산 정약용탄생 200주년 기념 논문집」과 「실학파의 철학사상과 사회정치적 견해」는 도서출판 한마당에서 출판하였다.

- ② 김광진, “토지개혁에 대한 丁茶山思想,” 「經濟研究」 4, 1961.
  - ③ 김광진, 「丁茶山の 경제사상」, 1962.
  - ④ 김석형, “다산 정약용의 생애와 활동,” 「다산 정약용탄생 200주년 기념 논문집」, 1962.
  - ⑤ 정진석, “다산 정약용의 哲學思想,” 「다산 정약용탄생 200주년 기념 논문집」, 1962.
  - ⑥ 김광진, “다산 정약용의 社會·經濟思想,” 「다산 정약용탄생 200주년 기념 논문집」, 1962.
  - ⑦ 리용태, “다산 정약용의 自然科學思想,” 「다산 정약용탄생 200주년 기념 논문집」, 1962.
  - ⑧ 신구현, “다산 정약용의 창작과 문학적 견해,” 「다산 정약용탄생 200주년 기념 논문집」, 1962.
  - ⑨ 박시형, “다산 정약용의 歷史觀,” 「다산 정약용탄생 200주년 기념 논문집」, 1962.
  - ⑩ 정학모, “다산 정약용과 조선어 연구,” 「다산 정약용탄생 200주년 기념 논문집」, 1962.
  - ⑪ 박형성, “다산 정약용의 敎育思想,” 「다산 정약용탄생 200주년 기념 논문집」, 1962.
  - ⑫ 김준식, “다산 정약용의 政治改革論,” 「력사과학」 4, 1962.
  - ⑬ 김준식, “정다산 년표,” 「력사과학」 4, 1962.
  - ⑭ 김준식, 「정다산의 愛國主義와 그의 活動」, 1963.
  - ⑮ 정성철, 「실학파의 철학사상과 사회정치적 견해」, 1974.
- 이외에도 「조선전사」 제10, 11, 12권의 茶山 관련부분 및 「조선통사(상)」(1977년판), 「조선철학사 개요」(1986년판), 「조선철학사 II」(1987년판) 등의 茶山 관련 서술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력사사전」(1971년판) 「정치사전」(1973년판) 등의 관련항목을 참고로 할 수 있다.

이상의 研究實態를 볼 때, 50년대 중반의 崔益翰의 저술을 시작으로 60

년대 초에 이르면 「다산 정약용탄생 200주년 기념 논문집」에 실려 있는 바와 같이 다산에 대해 다양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정성철의 「실학파의 철학사상과 사회정치적 견해」의 제 4장 제 5절에서 언급된 것 외에는 이렇다할 뚜렷한 연구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Ⅲ. 茶山研究視角의 變化

위의 연구현황을 토대로 북한학계에서 茶山을 어떻게 評價해 왔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評價의 變化過程을 읽기 위해 대표적 저작의 출판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전체 연구대상기간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第1期

第1期은 대체로 북한정권수립 이후 50년대 말까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의 다산에 관한 북한연구시각은 1955년에 간행된 「실학파와 정다산」에 잘 나타나 있다.

1952년 12월 15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5차 전원회의에서 金日成은 ‘당의 組織的, 思想的 強化는 우리 승리의 기초’라는 보고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써놓은 역사나 지리나 기타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고귀한 유산들을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견지로 분석하고 그를 섭취하여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이를 계기로 획일한은 그가 그동안 높이 평가해왔던 丁若鏞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를 하여 출간하였다.

이 책의 序文에,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적·사상적 전통을 이해 천명하기 위한 한 개 중요한 고리로서” 이 책을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듯이 ‘思想的 強化’를 強調하는 분위기 속에서 월북작가에 의해 쓰여진 것이다.

저자 획일한은 1897년 울진군의 유학가문에서 태어나 일본 식민지 시대

와 해방초기에 사회주의 운동가로서 활동한 바 있으며 국학 연구분야에서도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해방 후 장안파의 핵심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통일전선형성문제를 놓고 박헌영 일파와 견해를 달리 했기 때문에 1948년 월북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을 지낸 인물이다.<sup>3)</sup> 월북 이후에는 정치적으로 뚜렷한 활동을 보이지 않고, 주로 연구에 치중한 것 같다. 그는 김일성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력사제문제」 6호(1949)에 “3·1 운동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계고찰”을, 18호(1950)에 “조선문학사와 한문학” 등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런 연구활동 속에서 「실학과와 정다산」을 쓴 것으로 보인다.

그의 다산에 대한 관심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음을 그가 월북전 발표한 글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는 1935년 다산 서거 1백주년을 맞이하여 신조선사의 요청으로 “다산의 逸史와 일화” 및 “다산의 저서 총목”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 1938년 동아일보에는 “여유당 전서를 讀함”이란 주제아래 65회에 걸쳐 게재한 적이 있다.<sup>4)</sup> 그는 이런 글 속에서 여유당 전서가 출간되기는 했으나 다산연구가 쇠퇴하고 있는 실정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선 후기정권에서 소외된 채 유배생활을 하면서도 사회개혁을 제시한 다산을 혁명적 사상가로 평가하면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실학과와 정다산」을 썼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상편은 實學派의 史的 發展, 하편은 實學의 대성자 丁若鏞에 대한 研究라는 소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시대적 산물로서 실학을 체계화하고 그 가운데 한 개인을 위치 지우려고 한

3) 송찬섭, “최익한과 다산연구,” 「실학과와 정다산」(서울: 도서출판 청년사, 1989), pp. ii~v; 특히 박헌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창순, “8·15 해방과 남북한 공산주의,” 김정배 편, 「북한이 보는 우리 역사」(서울: 을유문화사, 1989), pp. 248~258을 참조.

4) 1938년 말부터 동아일보와 관계를 맺으면서 1940년 8월 폐간될 때까지 많은 글을 집필했는데, 이 때 “여유당 전서를 讀함”이란 주제아래 1938년 12월 9일부터 1939년 6월 4일까지 65회에 걸쳐 글을 게재했다.

의도라 하겠다.

여기서 최익한은 實學이란 “사상, 학설이 그 시대의 역사발전과 인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실리와 실용성 있는 학문”이라고 전제한 후, 다산은 이 실학을 완성시킨 대성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는 유교경전에 새로운 해석을 가한 점에서 유학 개혁사상을 지녔으며, 인식과 비판에 있어서 유물론적 요소가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균민주의, 문벌, 계급 및 지방차별제의 타파를 비롯하여 농민문제의 최종적 해결안인 閭田制라는 토지국유에 의한 토지분배를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다산을 민주주의적 반봉건사상가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단지 이처럼 시대를 선도하는 사상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낙후 및 역사적 제약이라는 객관적 조건 때문에 다가올 부르조아 사회를 과학적으로 예견하지 못한 것이 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다산의 가치를 코페르니쿠스적 轉回라는 용어로서 평가하면서<sup>5)</sup> 다산의 진보적·유물론적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의 견해는 唯物論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성과로서 평가되면서 북한학계의 공식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 2. 第2期

第2期에는 60년대 초반부터 1968년 동안의 다산연구실태가 해당되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의 다산에 관한 북한연구시작은 1962년 7월에 발간된 논문집인 「다산 정약용탄생 200주년 기념 논문집」에 잘 집약되어 있다.

이 책은 북한 과학원 철학연구소가 다산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정다산의 빛나는 생애와 선진사상과 학문적 업적을 정당하게 규명하여 전체 인민의 심장 속에 민족적 긍지와 애국주의적 정열을 더욱 북돋아주며 민족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한 과학 연구사업에 일층 박차를 가하는 하나

5) 「실학파와 정다산」, 앞의 책, p. 10.

의 계기로 삼고자”<sup>6)</sup> 발간한 것이다.

이 책은 김석형, 정진석, 김광진, 리용태, 신구현, 박시형, 정학모, 박형성 등의 각 분야 북한학자들이 철학, 사회·경제사상, 자연과학사상, 문학, 역사관 및 조선어 연구 및 교육사상 등의 관점에서 광범위하게 다산연구업적을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북한에서 丁茶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본다.

당시 북한학자들은 이 책에서 정다산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다산의 哲學思想에 대한 평가에서 부분적으로 觀念論的 해석을 배제시키지 않으려는 입장에서 벗어나 “선행학자들의 유물론적 견해를 계승하여 유물론적 철학체계를 수립하였다”고 까지 평가하고 있다.

월북학자인 역사학 박사 김석형<sup>7)</sup>은 “다산 정약용의 생애와 활동”에서 다산의 영특한 자질이 큰 힘을 발휘하여 반대파들의 중상과 음모 속에서도 진리를 사랑하며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실학에 매진할 수 있었으며, 그의 천재적이며 혁명적인 탁견이 여전제를 비롯한 進步의 思想을 구현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정진석은 “다산 정약용의 철학사상”에서 그의 철학사상에는 계급적, 이론적 제한성이 있으나 그의 유물론적 철학적 견해와 진보적 사회·정치적 견해는 조선 철학 발전에 거대한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그의 사상은 봉건착취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농민들을 불러 일으켰으며, 특히 사회발전에서 생산력의 발전이 미치는 주요한 역할에 착안한 進步의 思想家라고 評價하고 있다.<sup>8)</sup>

과학원 후보원사 김광진<sup>9)</sup>은 그의 사회·경제사상에 대해 평가하면서, 그는 비현실적이며 낡아빠진 유교이론을 실학적 입장에서 분석 비판하였

6) 「다산 정약용탄생 200주년 기념 논문집」(1962)의 서문.

7) 김석형의 생애에 대해서는 李光燦, “北韓의 歷史學,” 「東亞研究」, 제16집(1988, 12), pp. 47~55 및 임영태, “북으로 간 맑스주의 역사학자와 사회경제학자들,” 「역사비평」, 제간 6호(1989 가을), pp. 306~310를 참조.

8) 도서출판 한마당에서 1989년에 寫本으로 출간한 「정다산 연구」의 p. 63를 참조.

9) 김광진의 생애와 저술에 관해서는 임영태의 앞의 글 pp. 303~306을 참조.

으며 원시 유교의 유물론적 요소를 섭취하여 당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월북학자출신 과학원 원사 박시형<sup>10)</sup>은 茶山 丁若鏞의 歷史觀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湯論」, 「原牧」에 나타난 다산사상이 그 자체의 체계로써 끝까지 전개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이론에 근거하여 당시 현존 봉건왕조를 폭력에 의한 혁명으로 전복한다거나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이론적 전개를 펼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역사관의 제한성, 유배지에서의 연구자료 부족 등에서 기인하는 결과라고 함으로써 다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강하게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특히, 박시형은 다산의 「我邦疆域考」, 「渤海考」 등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역시 다산은 위대한 선진적 사상가이며, 탁월한 역사학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탄생 200주년 기념 논문집에 나타나고 있는 다산평가 시각은 전반적으로 강한 肯定的 性向을 보인다고 할 수 있고, 특히 唯物論的 進歩論者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 1기의 최익한을 중심으로 나타난 관점에 비해 보다 더 肯定的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산연구시각에 부응하여 다른 연구자들의 업적도 산출되고 있는 바, 1962년 역사학 학위논문으로 “다산 정약용의 정치개혁사상”을 쓴 조선노동당학교 소속의 김준식은 같은 해 「력사과학」 4호에 이를 요약 발표하고 있으며, 다음 해에는 「정다산의 애국주의와 그의 활동」이란 단행본까지 발간하고 있는데, 이 책은 구할 길이 없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다산을 애국자의 차원으로까지 끌어 올리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리고 이보다 2년 앞서 과학원 산하 철학연구소에서 출간된 정진석·정성철·김창원 공저의 「조선 철학사(상)」(1960)에서도 “정약용은 유학을

10) 박시형의 생애에 대해서는 李光鏞 教授의 앞의 글 pp. 55~61 및 임영태의 앞의 글 pp. 315~318을 참조.

실학입장에서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그에 새로운 내용을 부여하고 唯物論 哲學思想을 전개함으로써 실학자들의 선진적 사회개혁사상을 가장 높은 단계에까지 제고시켜 한국 철학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sup>11)</sup>고 평가함으로써 그 당시의 연구시각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 3. 第3期

第3期는 1969년 金日成 敎示가 발표된 후부터 현재까지로 볼 수 있다.

1969년 7월 김일성은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라는 교시를 통하여 실학과와 그들이 주장한 제 견해를 주체적 입장에서 바르게 평가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역사학자들을 비롯한 우리 학자들이 옛날 책에 대하여 평가한 것을 보면 많은 경우에 너무 과장하여 써 놓았습니다. 특히 실학파들이 내놓은 이론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학파들의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지난 날 우리 민족이 아무 것도 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허무주의입니다...”<sup>12)</sup>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실학과와 역사적 위치와 역할, 계급적 기초와 사상적 본질, 그 진보성과 제한성 등에 걸친 새로운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니 새로운 연구가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는 1~2년 후 출판된 「경제사전」(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1970) 및 「력사사전」(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71)의 관련 항목을 찾아보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바, 「경제사전」의 ‘경제유표’ 항목에서는 다산의 근본 입장과 기본 사상은 어디까지나 봉건지배계급의 입장이며 전통적인 유교 사상이라고 평가하면서, 「經世遺表」에서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발기들도 담겨 있으나 국가 및 사회제도에 대한 저자의 견해는 여전히 봉건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평가시각을 절하시키고 있다

11) 정진석, 정성철, 김창원 공저, 「조선철학사(상)」을 이성과 현실사에서 1988년에 발간했다. 이 寫本의 p.254 참조.

12) 「김일성 저작집」 22권, p. 51.

「력사사전」의 '실학' 및 '정약용' 항목에서도 그러한 시각은 드러나고 있는데, "실학은 당시로서는 진보적이었고 또 그 후 개화사상과 애국문화 계몽운동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지만 그 사상적 본질은 대체로 중소토지 소유자 계층에 속하는 진보적 양반들이 낡고 반동화된 양반들을 반대하는 사상에 불과했다"고 하면서 "정약용도 유학자였던 만큼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그의 사상은 불철저한 것으로서, 閭田制 실시를 주장한 근본취지는 가혹한 착취를 다소 조절함으로써 封建國家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하는데 있었으며, 노비문제 및 농민 폭도에 대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保守的이었다"고 후평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형성에는 "그의 애국정신은 비록 좋은 것이었지만 결코 근로인민을 진정으로 대표한 것이 아니고 또한 그들을 위한 나라를 구상한 것이 아니었다."<sup>13)</sup>는 다산의 진보적 사상에 깔려있는 계급적 본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한 金日成의 敎示가 결정적이었던 것이다.

이런 교시를 고려하여 실학파에 대한 재해석을 한 책이 1974년 정성철에 의해 간행되었는데, 「실학파의 철학사상과 사회정치적 견해」가 그것이다. 여기서는 앞서 언급한 최익한의 견해가 부분적으로 비판받으면서 수정되고 있는 바, 다산은 봉건제도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古代의 封建國家로 復歸하려고 노력한 인물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즉, 다산은 당시로서는 일정한 진보적 역할을 행한 애국적 사상가임은 인정하지만 그 본질은 봉건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한정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62년판을 보강한 77년판 「조선통사」에서도 유지되고 있고, 「조선전사」 33권 중 이조역사를 다루고 있는 10~12권(1980)에 구체적으로 잘 기술되고 있다.<sup>14)</sup>

그 후 80년대에 출간된 저작들에서도 다산을 비롯한 실학파를 보는 시각이 더 비판적으로 기울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1985년 사회과학원 철

13) 「력사사전」, p. 297의 '정약용' 항목.

14) 특히 「조선전사」 12권의 제 7장 제 1절.

학연구소가 간행한 철학사전의 '실학사상' 및 '정약용' 항목을 보면, "실학사상가 들은 봉건적 제관계가 지배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회역사적 조건과 자신들의 양반계급적 제한성으로 인해 봉건유교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봉건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 못한 결합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술하면서, 다산을 포함한 실학사상가들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觀念論者라고 못박고 있다.

박사 최봉익에 의해 사회과학출판사에서 간행된 「조선철학사 개요」(1986)도 그 부제가 '주체사상에 의한 조선철학사(1962)의 지양'이란 점에서 다산을 보는 시각이 앞의 수준과 다를 바 없고, 1987년 간행된 정성철의 「조선철학사 II」의 연구시각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第3期에 와서는 그 이전까지 진보적 유물론자로 평가받던 다산이 봉건적 울타리를 넘지 못한 觀念論者로 轉落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 IV. 茶山研究에 대한 評價

지금까지 살펴 본 다산에 대한 評價視角을 정리하면, 우선 최익한을 중심으로한 第1期에서는 시대적 제약성을 지니는 약점은 있으나 진보적 유물론적 견해를 지닌 사상가·개혁가로서 다산을 평가하고 있고, 第2期에서는 「다산 정약용탄생 200주년 기념 논문집」에 집약되어 있듯이 전반적으로 강한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 유물론적 진보론자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 반해, 69년 "사회과학의 임무에 관하여"라는 교시가 있는 후 나타난 第3期の 평가는 정반대로 봉건적 틀 속의 관념론자로서 한정짓고 있다.

그러면 왜 茶山을 보는 관점이 이와 같이 변화되어 왔는가? 觀點變化의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북한 政治理念 變遷過程과의 關聯性을

들 수 있다. 다산 정약용연구는 1952년 사상적 강화를 촉구한 교시에 따라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1962년 「다산 탄생 200주년 기념집」의 간행으로 그 절정을 구가하다가, 결국 1969년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라는 교시를 계기로 다산평가 시각에는 반전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북한 다산학은 결국 1952년 사상강화를 강조하는 김일성의 교시로부터 시작하여 69년 교시에 의해 그 연구시각이 전환되면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진행과정 속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이 바로 ‘실학과 인물들에 대한 평가에서 좌우편향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방법론적 지침’인 69년 교시이다.

이 교시는 왜 69년에 나오게 되었는가?

이는 당사가 북한에서의 정치이념이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主體思想으로 轉換되는 時期임과 아울러 김일성·김정일의 권력승계작업이 추진되던 시기였다는데서 그 답을 구할 수 있다. 즉, 이 때를 전후하여 사상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과거의 역사를 재해석하고자 하는 북한지도층의 의지가 역사학자들의 학문적 연구시각의 선택을 단 하나로 만들었다고 본다. 한마디로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학문적 양심도, 연구에 대한 집념도 주체사상을 앞세우는 정치적 압력 앞에서는 너무나 사치스럽고 위험한 것이었다. 主體史觀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고집은 학자의 지위상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북한에서 敎示가 차지하는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기 위해, 1985년 조선로동당 창건 40돐 기념으로 평양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발간한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전 10권) 중의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에 나오는 한 귀절을 보면, “수령의 사상은 곧 인민대중이 지녀야 할 혁명적 세계관이며, 수령의 교시는 전체인민의 조직적 의사이며 수령의 뜻은 인민대중의 한결같은 의지”라고 쓰여 있다. 이에 근거해 보면 북한에서는 수령의 교시를 무조건 집행하는 것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기본 요구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首領의 敎示는 무조건 철저히 관철되지 않으면 안 되

게 되어 있다.

이러한 위상을 지닌 敎示 또한 主體思想의 형성과정 속에서 필요에 따라 그 범위와 강도를 달리해 왔기 때문에, 교시의 내용변화에 따라 다산 평가를 포함한 역사해석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茶山學이 갖고 있는 性格에서 오는 관점변화의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다산은 사회·정치사상은 물론 철학·문학·자연과학·역사·국어·교육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방대한 양의 연구결과를 남겨 놓았기 때문에 다산의 학문적 위상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본다.<sup>15)</sup> 특히 다산이 전 생애를 살아가면서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남긴 글인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다산을 평가하려는 작업은 매우 거치른 결론을 유도하기 쉽다고 본다.

즉 다산학의 방대한 범위와 다산 자신의 사고변천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분으로써 전체를 파악하려는 경우 그 접근방법의 유용성을 떨어뜨리게 한다. 하나의 예로서 土地問題를 보더라도 다산이 처한 상황과 사고의 질적 변화에 따라 閭田制, 井田制 등으로 질적 변화를 보여 왔기 때문에 어느 시기의 정다산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요인이 북한 다산학연구에서 나타나는 관점변화의 과정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아님을 지금까지 살펴 본 결과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다산학의 양적·질적 측면이 관점변화에 미치는 영향력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다.

셋째, 북한에서 다산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끼리의 競爭 속의 葛藤이 또한 관점 변화를 가속화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김일성 교시에 의한 연구시각의 이데올로기적 강조라는 요인을 고려한다면 이 측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할 수 밖에 없지만, 「다산 정약용탄생 200주년 기념

15) 茶山이 61세 때에 자기 손으로 미리 써 놓은 자기의 墓誌名에 열거되어 있는 저서는 經集 232권, 文集 126권, 雜纂 141권, 총 499권인데, 그의 자손이 기록한 「열수전서 총목록」에 의하면 經集 250권, 文集 126권, 雜纂 166권, 총 542권이다.

논문집)에 그 당시 다산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다산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崔益翰이 빠져 있다는 점, 또한 69년의 교시를 계기로 이전의 다산에 대한 공식적 견해가 비판·수정되는 과정에서 과거 최익한과 견해를 같이 했던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식비판이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월북학자들간의 학문 속의 주도권 경쟁이 보이지 않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석형, 박시형, 김광진 등은 다산전문가도 아닌 경력을 갖고 최익한의 견해를 그대로 답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구소장 등 좋은 직책을 받았다는 점 및 정성철의 꾸준한 부상을 볼 때, 결국 崔益翰은 다산연구과정 속의 희생양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산을 보는 북한 관점에 대해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다산의 土地問題를 보는 시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다산이 진 생애를 통해 가장 관심을 나타낸 부분이 토지문제를 중심으로 한 農業改革論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茶山の 農業改革論은 크게 3段階를 걸쳐 연구되면서 완성되었다.

첫째 단계가 「農策」(정조 14년)과 「應旨論農政疏」(정조 22년)에 보이는 농업론으로서, 그는 여기서 농업기술의 개량을 통해서 農業生産力을 발전시키고 중농적인 제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생산의욕을 고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는 茶山이 젊은 관리로서 農業改革問題를 사회개혁문제와 관련시키지 않을 때다.

둘째 단계의 농업개혁론이 바로 「田論」(정조 23년)에 보이는 閭田制構想이다. 여기서는 井田論·均田論·限田論 등 종래의 토지론은 모두 단점을 지니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대안으로써 耕者有田의 原則을 강조하는 사회개혁론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단계의 농업개혁론이 「經世遺表」에서 보이는 토지론 즉 「井田論」, 「井田議」(순조 17년)에 보이는 農業改革論으로서 이는 「田論」의 농업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여기서는 농업을 개량하기는 하되 공동농

장이 아니라 무전농민층의 독립자영농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며 급격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써가 아니라 점진적이고도 온건한 방법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이 다산의 토지문제를 중심으로 한 농업개혁론을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단계인데,<sup>16)</sup> 북한은 다분히 閭田制만을 강조한 채 나머지 개혁안에 대해서는 가볍게 다루고 있다. 이는 최익한의 연구결과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의 연구결과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전제가 土地의 私的所有制度를 배제한다는 점 그리고 耕者有田의 法則 및 勞動에 의한 分配 등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북한에서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과 일치한다는 측면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閭田制를 부각시켜야만 하는 당위성은 다산의 토지개혁안의 변천과정을 정전제에서 여전제에로의 변천으로 거꾸로 서술하는 데에서도 읽을 수 있다. 이 변천과정의 순서는 북한에서는 최익한의 다산연구분석에서 처음 제기된 것인데 최익한의 견해가 부분적으로 비판받는 와중에서도 기본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다.

둘째 문제는 과연 한 사람의 사상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볼 수 있는나라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다산을 唯物論者나 觀念論者나 또는 進歩的인가 封建的인가라는 잣대로 評價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다산을 이해하는데 얼마만큼 유용할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 결국 이 잣대를 이용하여 69년 김일성 교시 이후에는 다산을 봉건제 울타리를 넘지 못한 관념론자로 규정짓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가 다산을 이해하는데에 얼마나 타당한 관점이 될 것인지 의심스럽다.

다산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대체적으로 다음의 3가지 觀點이 상호침투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관점은 다산이 과연 封建制的 生産關係로의 復歸를 주장했는 가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관점이며, 둘째 관점은 다산이 資本制的 生産關係의 出現을 과연 예상했을까를 살피는 것이

16) 金容燮, "정약용과 서유구의 農業改革論," 「創作과 批評」, 제 8권 제 3호(1973. 가을), pp. 804~817 참조.

며, 셋째 관점은 다산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의 경험적 한정성에도 불구하고 소위 東洋의 平等社會의 理想을 실현하려고 했던 하나의 社會改革論으로 茶山사상을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다.<sup>17)</sup>

이외에도 다른 관점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3가지 관점에서 다산을 이해하려고 할 때 비로소 다산학의 지평이 넓어지리라고 본다.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에만 서서는 다산사상의 전면모를 파악할 수 없으리라고 본다.

끝으로 다산을 설명하면서 북한에서는 ‘영특한 자질’, ‘천재적이며 혁명적 탁견’ 등의 표현을 자주 쓰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다산이 천주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西敎를 배제하고 西學만 받아들인 것은 다름아닌 다산의 영특한 자질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표현과 논리적 전개는 아마도 主體思想體系의 首領觀을 전개시키는 식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또한 다산평가의 一貫性 問題를 지적할 수 있는데, 제 2기에 들어와서 상당히 강조하던 다산의 자주성, 창조성은 제 3기 主體史觀을 강조할 때 부더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다산평가의 일관성을 찾기 어려움을 발견하게 된다. 아마도 김일성 이전에는 창조적, 자주적 측면에서 탁월한 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데서 기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我邦疆域考」 조선편에서 “조선의 이름은 평양에서 일어난 것이다”라고 했다는 점은 제1, 2, 3기를 통해 언제나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편의에 의해 취사선택 되어지는 다산평가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간단히 종합한다면, 주체사상 형성과정과 함께 역사해석 시각이 달라지게 됨에 따라, 북한에서의 茶山 丁若鏞은 조선의 마르크스

17) 茶山을 서로 상반된 시각 속에서 분석한 글로는 金弘明, “茶山の 田制論—西歐 空想的 社會主義와의 한 比較(I)—,” 李克燦 編, 「民主政治와 韓國政治」 (서울: 법문사, 1985), pp. 67~95을 참조.

로 부각될 뻔 하다가 결국 조선의 카알라일이나 조선의 생시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제1,2기에는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갖춘 진보적 혁명가로 평가함으로써 조선의 마르크스 위치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봉건적 울타리를 넘지 못한 관념론자, 복고주의자로 전락한 셈이다. 또 한번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아닐 수 없다.

그 주요 원인은 정다산 자체나 연구자의 관점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김일성의 敎示에 있음을 지금까지의 관찰에서 알 수 있다.

결국 지금 현재 북한에서의 다산 정약용은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의 침대’가 아닌 主體思想이라는 ‘김일성의 寢臺’ 위에 눕혀진 신세나 다름없다. 이런 처지의 다산을 主體史觀的 表現을 빌어 그린다면 “봉건제의 완전한 실현을 꿈꾼 茶山, 당시 양반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면서도 계급적 겁질을 벗어던지지 못한 茶山, 역사의 흐름을 모름으로써 끝내 시대적 제한성을 극복하지 못한 茶山” 그래서 궁극적으로 “봉건적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한 觀念論者”인 것이다.